

# 인 사 말

우리 나라 대학에서도 “publish or perish”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논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경영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영학연구」의 편집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경영학연구」가 더 우수한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선, 「경영학연구」에 게재되기에 적합한 성격의 논문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경영학연구」는 다양한 경영학의 분야를 포괄하는 유일한 학술지로서 가능하면 게재되는 논문의 주제나 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국내외에 있어서 경영학의 연구는 오랫동안 세부 전공분야로 나누어져 미분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경영학연구」도 전통적인 전공분야별로 편집위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특정 전공분야에 속하지 않거나 기업경영에 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논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영학연구」가 전공분야의 학술지들과 다른 차이점은 전공분야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전통적인 전공분야로 분류되기 어려운 새로운 주제나 또는 여러 주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논문의 투고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문들에 대해서는 임시로 별도의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분야와 주제뿐만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전형적인 실증 연구이외에 개념적 연구나 사례를 이용한 연구 또는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한 연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단, 사례연구에 있어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특정 기업의 사례를 정리하여 기술한 논문은 「경영학연구」보다 경영사례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경영교육연구」가 더 적합한 출판경로라고 생각됩니다. 「경영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론적 기여도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영학의 지식에 추가하여 새로운 지식과 시사점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현재 「경영학연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사와 출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접수되어 1차 심사가 종료되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문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능하면 1개월 이내에 1차 심사가 종료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를 의뢰 받은 회원들께서 심사마감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보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에 의하여 게재확정 된 논문이 인쇄되어 출판되는데는 다시 약 6개월 가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경영학연구」가 일년에 4회 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학에서 요구하는 연구업

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투고되는 논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수한 논문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출판하기 위해서는 발행 회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편집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경영학연구」의 발행 회수를 5회나 6회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학회의 수준과 명성은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봅니다. 「경영학연구」는 경영학회의 간판 학술지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우수한 논문들을 게재함으로써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얼마 전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학술지 평가에서 경영학 분야의 수많은 학술지 가운데 「경영학연구」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우리 학회의 학문적 역량을 입증해 주는 쾌거라 하겠습니다.

저희 편집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전통을 이어받아 「경영학연구」가 앞으로도 경영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학술지로 자리 굳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학연구」의 편집에 관한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지역, 전공별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장 지 용 희 드림